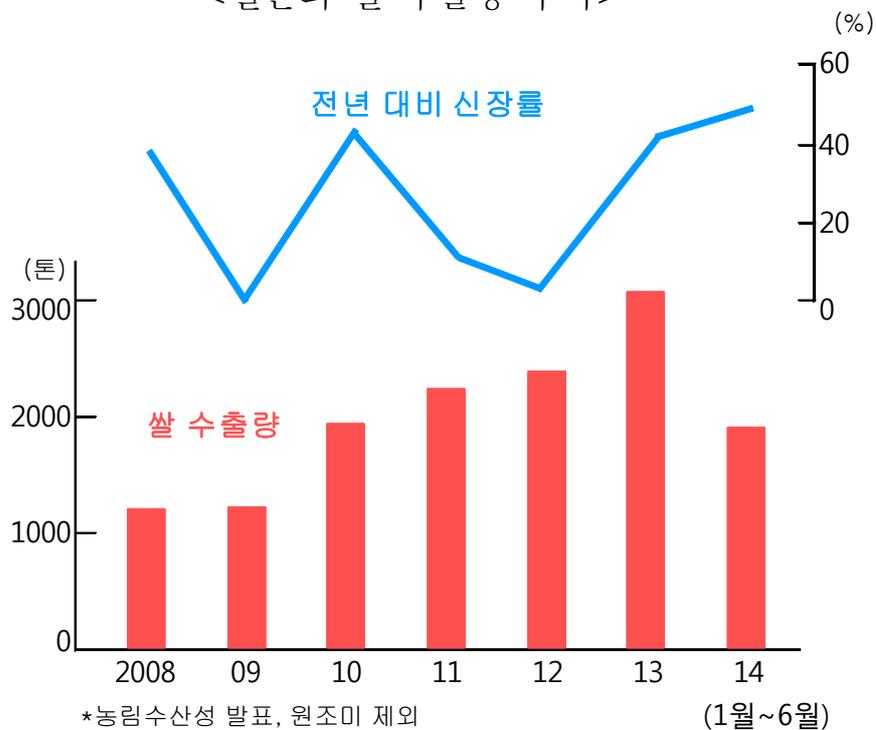


일본의 금년 1~6월 쌀 수출량(원조미 제외)은 1,88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0% 증가하여 과거 최대 수준을 기록함. 일본 국내의 연간 소비량 800만톤과 비교하면 양은 많지 않으나, 해외 일식 붐과 더불어, 엔저와 국내가격 하락으로 인해 쌀의 내외가격 차가 축소됨에 따라 쌀 도매회사나 생산자가 수출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.

<일본의 쌀 수출량 추이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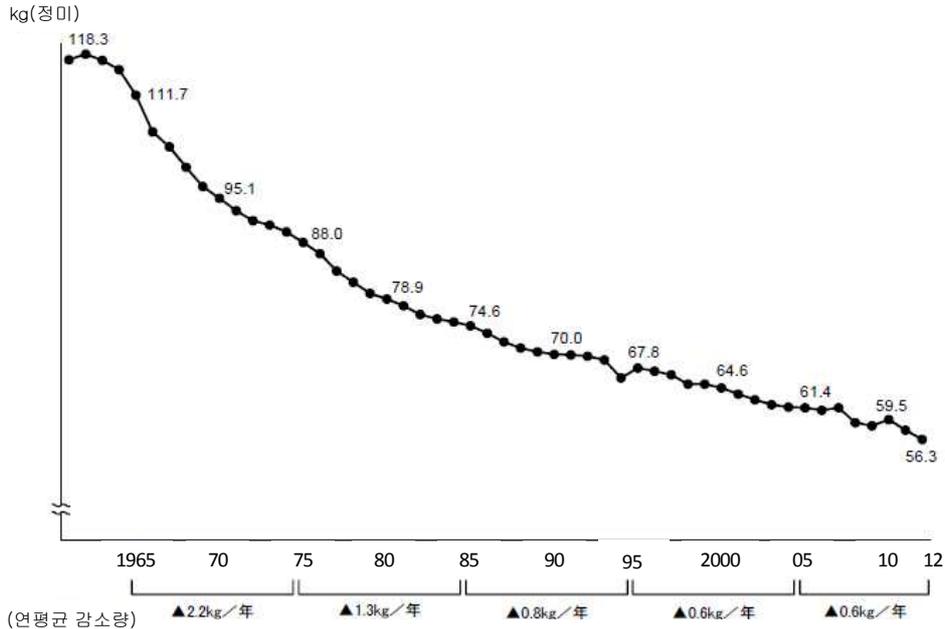
◇ 일식 붐에 편승한 수출 증가

- 일본의 최대 쌀 도매회사인 신메이홀딩은 '14년산(미곡년도 '13.11-'14.10 기준, 이하 동일) 쌀 수출량을 전년의 2배인 2천톤으로 확대함. 동사가 최대 지분을 보유한 초밥 레스토랑이 싱가포르에 신규 오픈한 점포에서 니가타현산 쌀(코시히카리)을 채택하였고 홍콩 등에 진출한 일본계 외식업소 대상 공급을 확대하였음.
- 기타 쌀 도매회사는 아시아 이외에도 최근 일식 붐이 일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코시히카리나 아키타코마치 등의 브랜드 쌀을 슈퍼나 외식점포에 판매하여 '14년산 수출이 전년대비 80% 증가한 900톤을 기록함.

### ◇ 일본 국내 소비의 감소와 가격 하락

- 쌀 수출량 증가는 일본 국내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에 따라 수출을 통해 활로를 찾으려는 생산자가 늘어난 것도 한 요인임.
- 니가타 소재 한 농업생산법인은 작년까지는 전혀 수출을 하지 않았으나 금년 들어 약 130톤을 수출하였음. 대표자는 “국내수요가 축소되고 있어 수출 루트를 만드는 것이 장래성이 있다”고 판단하고 있음.

<일본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추이>



출처 : 일본농림수산성 “식량수급표”

- 또한, 엔저로 인한 내외가격차 축소도 수출 증가의 한 요인임. ‘14년 1~6월의 수출단가는 1kg당 320엔으로 전년대비 4% 하락했음.
- 일본산 쌀 가격은 해외 초밥용으로 경합하는 캘리포니아산의 4~5배 수준이었으나 최근엔 3.3배 수준으로 축소되었음. 또한 가뭄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산의 가격 상승도 가격차 축소에 영향을 미침.
- 생산조정(경지축소)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출용 쌀은 가공용이나 사료용과 마찬가지로 6월말까지 판매처를 확보해야 생산이 허용됨. 그 이후에 추가로 계약이 성립된 경우는 내수용으로 생산된 것을 수출할 수밖에 없어 타산이 맞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.

### ◇ 시사점

- 가격경쟁력이 약한 한국산 쌀의 해외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처럼 해외 한식레스토랑을 적극 활용하고 한국 식문화 보급에 힘써야 함.